

HIV/AIDS 환자의 영적 안녕과 영적 요구도 조사

곽 지 현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간호부

A Research of the Spiritual Well-Being and Spiritual Needs of HIV/AIDS Patients

Ji-hyun Gwak

Nursing Department, Kangnam St. Mary's Hospita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to assess spiritual health of HIV/AIDS patients and devise spiritual nursing mediation plans in practical nursing work by examining the levels of spiritual well-being (SWB) and spiritual needs of HIV/AIDS patients'. **Methods:** A correlation survey study was conducted on HIV/AIDS patients age ranging from 20 to 70 year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SWB and spiritual needs. **Results:** 1. Average scores of HIV/AIDS patients' related to SWB were found to be higher than the intermediate level: 54.59 in SWB; more specifically, 27.78 in existential well-being and 26.80 in religious well-being. 2. Average score of for HIV/AIDS patients' spiritual needs was 108.67: More specifically, 37.80 in the needs of love and interest, 42.35 in the needs of seeking meanings and purposes, and 28.51 in the needs of wanting to be forgiven. 3. Concerning the correlation between SWB and spiritual needs, the total SWB and total spiritual needs of HIV/AIDS patients' showed a weak positive correlation ($r=0.344$, $P=0.013$). **Conclusion:** The result of the study showed that SWB and spiritual needs of HIV/AIDS patients' are higher than the average scores, and these two parameters have a weak positive correlation, indicating that HIV/AIDS patients have strong spiritual needs of seeking meanings and purposes. Therefore, more studies on the spiritual nursing mediation plans are needed in order to raise their spiritual well-being levels and meet their spiritual needs through precise assessment. (Korean J Hosp Palliat Care 2009;12:14-19)

Key Words: HIV/AIDS, Spiritual well-being (SWB), Spiritual needs

서 론

에이즈가 지구상에서 최초로 발견된 1981년 이래 오늘날 수백만의 HIV감염자와 에이즈환자를 포함한 에이즈 관련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잘 알려지지 않는 질병의 특성 상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에이즈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감염 즉시 사망’이

라는 과거의 인식과는 달리 감염자의 생존 기간이 늘어가는 등, 이제 에이즈는 불치병의 성격과 만성질환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질병으로 변화되고 있어¹⁾ 재원 환자 중 에이즈 관련 환자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추세와는 달리 HIV/AIDS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편견, 도덕적 비판은 심리적 소외감을 유발하고, HIV/AIDS진단을 받은 감염자들은 근심, 분노, 우울을 흔히 경험한다. HIV/AIDS감염 진단을 받은 개인의 심리적 반응은 암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보다 더욱 심하다고 알려져 있다.²⁾ HIV/AIDS 환자에게는 질병 극복과 사회적 낙인에 대한 극복이라는 이중적 과제가 주어지는데 이는 질병 반응 이상의 복합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이 중

접수일: 2008년 11월 19일, 수정일: 2008년 12월 9일

승인일: 2009년 1월 20일

교신저자: 곽지현

Tel: 02-590-2010, Fax: 02-590-7852

E-mail: nursekjh@catholic.ac.kr

사회적인 격리는 가장 근본적인 심리적 고통이 된다.³⁾ 이러한 상황에서 심리적 안녕은 HIV/AIDS 환자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⁴⁾

그러므로 HIV/AIDS 진단을 받은 환자들은 다른 환자에 비해 보다 많은 신체적, 정신·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측면을 포함한 전인간호가 더욱 요구된다. 또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HIV/AIDS 환자들에게 영적 간호는 전인적 건강을 위해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많은 학자들은 영적 간호는 전인 간호를 지향하는 간호학 이론의 중요한 핵심개념으로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필수적인 차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⁵⁾ Fish와 Shelly는 영적 요구에 대한 정확한 문제 규명과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영적 간호 중재를 실시하였을 때 치유가 촉진된다고 지적함으로써 영적 간호의 제공과 영적 안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⁶⁾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간호학 이론이나 실무의 대부분은 인간의 신체적인 측면에 치우쳐 있어 실제적으로 환자의 영적요구를 사정하는 도구나 영적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임상실무지침은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또한 지금까지 HIV/AIDS 환자에 대한 우리 학계에서의 관심도 미비한 수준인데, 연구보고서들은 HIV/AIDS 환자 실태조사 및 의학계의 질병과 치료에 대한 연구보고서, HIV/AIDS 환자에 대한 비감염인의 지식 및 태도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HIV/AIDS 환자의 영적 안녕과 영적 요구 정도를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간호학에 있어서의 전인적 개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간호 실무면에서 HIV/AIDS 환자의 영적 건강 사정과 영적 간호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HIV/AIDS 환자의 영적 안녕과 영적 요구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관계성 조사 연구(Correlation Survey Research)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07년 6월에서 10월까지 서울소재 C 대학부속 병원에 입원 및 외래를 방문하는 20세에서 70세 사이의 HIV/AIDS 환자 5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대상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담당의사로부터 HIV/AIDS 진단을 받은 자

- (2)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자

- (3) 구두나 서면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3. 연구도구

1) 영적 안녕: 본 연구에서는 Palouzian과 Ellison이 개발한⁷⁾ 영적 안녕 척도를 최상순이 번역하고, 강정호가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8,9)} 이 도구는 절대자(신)와의 관계에서 안녕감을 갖는 종교적 영적 안녕과 삶의 의미와 목적에 초점을 둔 실존적 영적 안녕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 이 도구는 긍정형 12문항과 부정형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정말 그렇다”는 4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하며, 부정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으로 안녕한 것을 의미한다. 홀수 번호의 문항들은 실존적 안녕을 사정하는 것이며, 짝수 번호의 문항들은 종교적 안녕을 사정하는 것으로 각각 10개의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도구의 신뢰도는 최상순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91$ 이었으며⁸⁾, 본 연구에서는 .89이었다.

2) 영적 요구: 본 연구에서는 Fish와 Shelly가 제시한⁶⁾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김태희가 개발한 영적 요구 사정 도구 30문항으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사랑과 관심에 대한 요구 10문항,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는 요구 12문항, 용서받고 싶은 욕구 8문항의 총 30문항으로 구성된 도구를 사용하였다.¹¹⁾ 이 도구는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정말 그렇다”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하고 각 항목의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요구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9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자료 수집은 2007년 5월 서울 소재 C 대학부속 병원에서 IRB승인을 받은 후 본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 및 취지를 설명한 후 철저한 익명을 보장으로 하여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환자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게 한 후 수집하였다. 수집 자료는 총 54부에서 부적절하게 응답한 설문지 3부를 제외한 총 51부가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IL, USA)으로 분석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HIV/AIDS 환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등의 기술 통계로 분석하였다. HIV/AIDS 환자의 영적 안녕과

영적 요구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 영역별 평균과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다. HIV/AIDS 환자의 영적 안녕과 영적 요구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인 HIV/AIDS 환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남자가 46명(90.2%), 여자가 5명(9.8%)으로 남자가 더 많았다. 연령은 40세 이상에서 50세 미만인 18명(35.29%)으로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이 16명(31.38%), 20 이상에서 30세 미만이 10명(19.61%)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미혼이 33명(64.71%)으로 가장 많았고, 기혼이 15명(29.41%), 이혼이 3명(5.88%)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과 대졸 이상이 각각 21명(41.18%)으로 같게 나타났으며, 직업유무에 따라서는 직업이 있는 사람이 27명(58.82%), 직업이 없는 사람 20명(39.22%), 학생 3명(5.88%)으로 나타났으며, 경제 상태는 수입이 없는 사람이 학생을 포함하여 23명(45.10%)으로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이 6명(11.76%), 50만원 미만이 5명(9.80%)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천주교가 24명(47.06%), 무교가 13명(25.49%), 개신교가 7명(13.73%), 불교가 4명(7.84%), 기타가 3명(5.88%)으로 나타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38명(74.51%),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13명(25.49%)으로 나타났다.

HIV/AIDS 감염 사실을 인지한 기간은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인 사람이 16명(31.37%)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이상인 사람이 11명(21.57%), 1년 미만인 사람이 10명(19.61%)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건강 상태에 대하여 ‘보통이다’ 38명(74.51%), ‘나쁜 편이다’ 7명(13.73%) 순으로 나타났다. 동거인은 가족이 23명(45.10%), 혼자 12명(23.53%)으로 나타났다.

HIV/AIDS 환자들 살아가는 동안 가장 힘든 점으로 경제적 어려움 15명(29.41%), 사회적 편견과 차별 13명(25.49%), 대인관계로 인한 소외감과 건강악화로 신체적 어려움이 각각 7명(13.73%)으로 나타났다(표 1).

2. 대상자의 영적 안녕

HIV/AIDS 환자의 영적 안녕은 평균 54.95점으로 중 정도로 나타났다. 영적 안녕의 하위영역을 보면 실존적 안녕은 평균 27.78점이고, 종교적 안녕은 평균 26.80점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성	구분	실수(N)	백분율(%)	
성별	남	46	90.2	
	여	5	9.80	
연령	20세 이상~30세 미만	10	19.61	
	30세 이상~40세 미만	16	31.38	
	40세 이상~50세 미만	18	35.29	
	50세 이상~60세 미만	6	11.76	
	60세 이상	1	1.96	
결혼 상태	기혼	15	29.41	
	미혼	33	64.71	
	이혼	3	5.88	
학력	중졸 이하	5	9.80	
	고졸	21	41.18	
	대졸	21	41.18	
	대학원 이상	3	5.88	
	무응답	1	1.96	
	직업	무직	20	39.22
		회사원	7	13.73
상업		7	13.73	
서비스업		2	3.92	
전문직		4	7.83	
학생		3	5.88	
기타		7	13.73	
무응답		1	1.96	
경제 상태	수입이 없음	23	45.10	
	50만 미만	5	9.80	
	50만 이상~100만 미만	2	3.92	
	100만 이상~150만 미만	2	3.92	
	150만 이상~200만 미만	4	7.85	
	200만 이상	6	11.76	
	무응답	9	17.65	
종교	무교	13	25.49	
	개신교	7	13.73	
	천주교	24	47.06	
	불교	4	7.84	
	기타	3	5.88	
	건강상태	매우 좋다	4	7.84
보통이다.		38	74.51	
나쁜 편이다.		7	13.73	
아주 나쁘다.		2	3.92	
에이즈 감염 인지 기간	1년 이하	10	19.61	
	1년 이상~2년 이하	16	31.37	
	2년 이상~3년 이하	1	1.96	
	3년 이상~4년 이하	8	15.69	
	4년 이상~5년 이하	2	3.92	
	5년 이상	11	21.57	
	무응답	3	5.88	
동거인 여부	가족	23	45.10	
	친구	3	5.88	
	혼자	12	23.53	
	쉽터	7	13.73	
	기타	6	11.76	
	에이즈로 인하여 가장 힘든 점	경제적 어려움	15	29.41
대인관계 단절로 인한 소외감		7	13.73	
건강 악화로 인한 신체의 어려움		7	13.73	
사회적 편견과 차별		13	25.49	
기타		5	9.80	
없음		3	5.88	
무응답		1	1.96	

표 2. HIV/AIDS 환자의 영적 안녕. n=51.

영역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평균평점
실존적 안녕	16	37	27.78±4.92	2.78±0.49
종교적 안녕	14	40	26.80±6.14	2.68±0.61
전체	35	77	54.59±9.88	5.46±0.99

으로 대상자들이 절대자(신)와 관련된 종교적 안녕보다 삶의 목적과 만족에 관계된 실존적 안녕에 대해 더 높은 안녕감을 보였다(표 2).

실존적 안녕의 각 문항별 평균평점을 살펴보면 10개 문항 중 평균 2.78점 이상인 항목이 5개로 중 정도의 긍정적 반응을 보였는데, “산다는 것은 내게 많은 의미를 준다.”(3.22), “나는 삶이 긍정적 경험이라고 믿는다.”(3.14), “나는 나의 삶에 어떤 참 목적이 있다고 믿는다.”(2.86)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낮은 문항으로는 “나는 나의 장래가 안정되어 있지 않다고 믿는다.”(2.39), “나는 나의 삶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하여 안녕감을 느낀다.”(2.57)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종교적 안녕은 “나는 절대자(신)가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 주신다고 믿는다.”(3.00)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나는 절대자(신)가 나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2.80), “나는 절대자(신)와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안녕감을 갖는다.”(2.73)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나는 절대자(신)와 함께 있을 때 가장 만족스럽게 느낀다.”(2.51), “나는 절대자(신)와 만족스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2.59)의 순으로, 절대자(신)와의 개인적이고 경험적인 것에 관한 항목보다는 신에 대한 막연한 믿음에 관한 항목들이 높은 점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대상자의 영적 요구

HIV/AIDS 환자의 영적 요구는 평균 108.67점으로 중 정도 이상으로 나타났다. 영적 요구의 하위영역을 보면 사랑과 관심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는 평균 37.80점이고,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는 요구에 있어서는 평균 42.35점, 용서받고 싶은 요구는 평균 28.51점으로 세 하위 영역 모두 중 정도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는 요구, 사랑과 관심에 대한 요구, 용서받고 싶은 요구 순으로 대상자의 영적 요구 정도가 높았다(표 3).

총 30문항의 영적 요구 중 가장 높은 요구를 보인 문항은 “현재 나의 능력 안에서 의미 있는 생활을 하도록 배려해주길 원한다.”(4.12)이고, 가장 낮은 문항은 “육신

표 3. HIV/AIDS 환자의 영적 요구. n=51.

영역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평균평점
사랑과 관심에 대한 요구	11	50	37.80±8.07	3.78±0.81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는 요구	12	60	42.35±11.69	4.24±1.17
용서받고 싶은 요구	8	40	28.51±8.23	2.85±0.82
전체	32	150	108.67±24.52	3.62±0.82

의 고통과 불편함으로 정규적인 신앙 활동을 못해 안타깝다.”(2.94)이었다.

사랑과 관심에 대한 요구의 각 문항별 점수를 살펴보면 10개 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슬프고 외로울 때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랑해 주길 원한다.”(4.02)였고,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같은 믿음을 가진 교우나 친지의 방문을 원한다.”(3.04)로 나타났다.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는 요구 12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은 “현재 나의 능력 안에서 의미 있는 생활을 하도록 배려해주길 원한다.”(4.12)였고,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병원 내 예배나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길 원한다.”(3.04)이었다.

용서받고 싶은 요구 8문항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전생의 어떤 업보나 죄가 있다면 용서받고 싶다.”(4.06), “내 앞에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아픈 것이 후회스럽다.”(4.06)이었고, 낮은 점수를 보인 문항은 “육신의 고통과 불편함으로 정규적인 신앙 활동을 못해 안타깝다.”(2.94)로 나타났다.

4. 대상자의 영적 안녕과 영적 요구와의 관계

HIV/AIDS 환자의 영적 안녕과 영적 요구와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약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0.344, P=0.013$). 영적 요구의 하위영역 중 사랑과 관심에 대한 요구는 총 영적 안녕과 하위영역인 종교적 안녕과는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실존적 안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는 요구는 총 영적 안녕, 실존적 안녕, 종교적 안녕과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용서받고 싶은 요구는 총 영적 안녕, 실존적 안녕과 종교적 안녕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총 영적요구는 총 영적 안녕과 약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영적 안녕의 하위영역인 실존적 안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종교적

표 4. HIV/AIDS 환자의 영적 안녕과 영적 요구와의 관계.

	실존적 안녕 (P)	종교적 안녕 (P)	영적 안녕 (P)
사랑과 관심에 대한 요구	0.189 (-0.184)	.333* (0.017)	.301* (0.032)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는 요구	.321* (0.021)	.478* (0.000)	.458* (0.001)
용서받고 싶은 요구	-0.156 (0.274)	0.254 (0.072)	0.080 (0.576)
영적 요구	0.163 (0.253)	.423* (0.002)	.344* (0.013)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2-tailed).

안녕과는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4).

고 찰

본 연구의 목적은 HIV/AIDS 환자의 영적 안녕과 영적 요구 정도, 그리고 영적 안녕과 영적 요구와의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분석 결과 HIV/AIDS 환자의 영적 안녕 점수는 평균 54.5점이었으며 영적 안녕을 실존적 안녕과 종교적 안녕으로 분류하여 각 영역의 평균을 산출했을 때 실존적 안녕은 27.78점, 종교적 안녕은 26.80점으로 모두 중 정도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종교적 안녕보다 실존적 안녕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는 경향과 일치 하였다.^{8,9,12)} 이를 토대로 HIV/AIDS 환자는 절대자(신)와 관련된 종교적 관계에서의 안녕보다 삶의 만족과 의미를 추구하는 실존적 안녕에 있어 더 높은 안녕감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HIV/AIDS 환자를 대상으로 영적 안녕 정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없었지만 타 집단을 대상으로 영적 안녕 도구를 이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영적 안녕 정도가 평균 54.89점으로 영적 안녕 상태에 대해 높게 지각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¹³⁾, 암환자를 대상으로 측정된 영적 안녕 정도는 평균 53.44점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⁹⁾, 일 지역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영적 안녕 정도가 평균 87.97점, 실존적 안녕은 42.57점, 종교적 안녕은 39.12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⁸⁾ 또한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영적 안녕 정도가 평균 73.8점, 실존적 안녕은 37.6점, 종교적 안녕은

36.2점으로 중상 정도로 나타났으며¹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영적 안녕 정도가 평균 60.44점, 실존적 안녕은 29.52점, 종교적 안녕은 30.91점으로 나타났다.¹⁶⁾

이상의 결과를 통해 HIV/AIDS 환자들은 일반 환자나 암 환자와 비슷한 수준의 영적 안녕 정도를 가지고 있으나 일반 성인과 혈액투석 환자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노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HIV/AIDS 환자들의 영적 요구 점수는 평균 108.67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영역별로는 사랑과 관심에 대한 요구가 37.80점,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는 요구가 42.35점, 용서받고 싶은 요구가 28.51점으로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는 요구, 사랑과 관심에 대한 요구, 용서받고 싶은 요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동일한 도구를 이용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내, 외과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평균 114.46점으로 본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¹¹⁾, 암환자를 측정된 연구에서는 평균 104.22점으로 본 연구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¹⁴⁾, 혈액투석 환자에 대한 연구에서는 평균 105.1점으로 나타났다.¹⁵⁾ 선행 연구에서 영역별 요구는 사랑과 관심에 대한 요구, 용서받고 싶은 요구,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는 요구 순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는 요구, 사랑과 관심에 대한 요구, 용서받고 싶은 요구 순으로 나타났다.^{11,13-15)}

영적 요구 중 HIV/AIDS 환자들이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는 요구가 높은 것은 인간은 궁극적으로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이며, 현재의 위기 상태의 경험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하는 요구,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적응하려는 요구, 좌절감을 극복하고 생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요구, 인생과 질병의 의미를 깨닫고자 하는 요구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를 충족하고 도와줄 수 있는 영적 간호 중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HIV/AIDS 환자들의 영적 안녕과 영적 요구는 약한 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 대상자의 수가 많지 않은 요인도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대상자 수를 확대한 영적 안녕과 영적 요구와의 관계에 대한 반복 연구를 통한 재 검증이 필요하다. 영적 요구의 하위영역인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는 요구는 영적 안녕의 하위영역인 실존적 안녕, 종교적 안녕과 순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용서받고 싶은 요구는 실존적 안녕, 종교적 안녕, 총 영적 안녕 모두와 통계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이는 추상적이고 내세적인 것보다 현재의 삶에 대한 의미와 목적과 관련된

영적요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영적 안녕의 하위영역인 실존적 안녕과 영적 요구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한 영적 안녕과 영적 요구의 관계에 대한 반복 연구를 통해 깊은 분석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HIV/AIDS 환자의 수를 확대한 영적 안녕과 영적 요구와의 관계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며, HIV/AIDS 환자의 영적 요구에 맞는 영적 간호 중재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요 약

목적: HIV/AIDS환자의 영적 안녕과 영적 요구 정도를 파악하여 간호실무 면에서 HIV/AIDS 환자의 영적 건강 사정과 영적 간호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방법: HIV/AIDS 환자의 영적 안녕과 영적 요구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관계성 조사연구(Correlation Survey Research)이며, 연구 대상은 20세에서 70세 사이의 HIV/AIDS 환자 51명이다.

결과: 1. HIV/AIDS환자의 영적 안녕 점수는 평균 54.59 점이었으며, 영적 안녕의 하위 영역인 실존적 안녕은 27.78점, 종교적 안녕은 26.80점으로 모두 중 정도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HIV/AIDS환자들은 자신의 영적 안녕 상태에 대해 중 정도로 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종교적 안녕보다 실존적 안녕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2. HIV/AIDS환자의 영적 요구 점수는 평균 108.67점이고 영역별로는 사랑과 관심에 대한 요구가 37.80점,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는 요구가 42.35점, 용서받고 싶은 요구가 28.51점으로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는 요구, 사랑과 관심에 대한 요구, 용서받고 싶은 요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 영적 안녕과 영적 요구의 상관관계에서 HIV/AIDS환자의 총 영적 안녕과 총 영적요구는 약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0.344$, $P=0.013$). 영적 안녕의 하위영역인 실존적 안녕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 종교적 안녕과는 순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 HIV/AIDS환자의 영적 안녕과 영적 요구는 중 정도 수준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영적 안녕과 영적 요구간의 약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HIV/AIDS환자들은 의미와 목적을 갈망하는 요구도가 높으므로 이에 대

한 영적 간호를 제공하여 현재 위기 상태의 경험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하여 실존적 영적 안녕 정도가 증진되도록 지지하고, 앞으로 대상자 수를 확대한 연구와 영적 안녕을 증진시키는 간호 중재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하리라고 사료된다.

중심단어: HIV/AIDS, 영적 안녕, 영적 요구

참 고 문 헌

1. Campsmith ML, Nakashima AK, Davidson AJ. Self-reporte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persons with HIV infection: results from a multi-site interview project. *Health Qual Life Outcomes* 2003;1:12.
2. 한경숙. HIV/AIDS환자의 심리사회적 요구와 국내 AIDS관련법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1991.
3. 장순복. HIV감염자의심리상담: 상담요원 및 자원봉사자교육. 대한에이즈예방협회 1991.
4. Ragsdale D, Morrow J. Quality of life as a function of HIV classification. *Nursing Research* 1990;39(6):355-59.
5. Ross LA. Teaching spiritual care to nurses. *Nurse Educ Today* 1996;16(1):38-43.
6. Fish S, Shelly JA. *Spiritual care: The Nurse's role*. [1]. Downers Grove, Illinois:InterVarsity Press;1978.
7. Palmore E, Luikart C. Health and social factors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J Health Soc Behav* 1972;13(1):68-80.
8. 최상순. 일 지역 성인의 영적 안녕, 희망 및 건강상태에 관한 관계 연구[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1990.
9. 강정호. 암환자의 영적 안녕 상태에 관한 조사 연구[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6.
10. Ellison CW. Spiritual well-being: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J Psychol Theol* 1983;11(4):330-40.
11. 김태희. 입원환자의 영적 요구와 그 충족 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1986.
12. 김숙희. 입원 노인의 죽음 정의와 영적 안녕과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2001.
13. 송혜숙. 입원 환자의 영적 안녕과 영적 요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2002.
14. 한영인. 암환자의 절망감과 영적 요구와의 관계[석사학위 논문]. 고신대학교;1998.
15. 김희운. 혈액투석 환자의 영적 요구와 영적 안녕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2007.
16. 박현덕. 영적 안녕이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석사학위 논문]. 영남신학대학교;2007.